

# “자율주행 실증, 추돌 위험 낮은 지역부터 단계적 추진”

### 광주연구원, ‘광주정책포커스’서 실증 방향 제시 후방 추돌사고 위험도 분석...도로 사전 정비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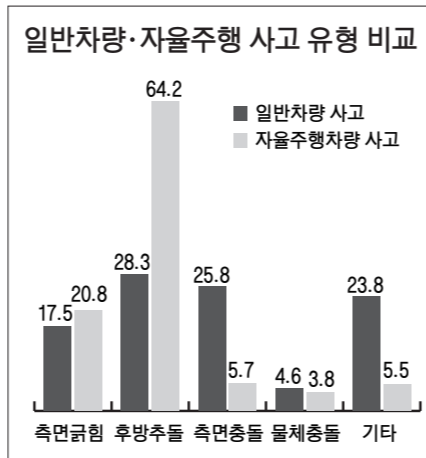
광주시가 국내 최초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선정된 가운데 자율주행 실증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통사고 위험이 낮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실증구역을 확대하고 도로 환경을 사전에 정비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광주연구원은 10일 발간한 광주정책포커스 제32호 ‘광주시 자율주행 실증 방향’을 통해 교통안전을 기반으로 한 단계적 실증 전략과 체계적인 도로 환경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올해 국내 최초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공간으로 선정돼 생활도로와 도심부, 주거지역, 산업단지 등 다양한 교통 환경에서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영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1000여대를 도심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보고서는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이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이뤄



지는 만큼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율주행 사고는 차량 제조사와

시스템 개발자, 운전자, 도로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 책임을 명확히 가리기 쉽지 않은 만큼, 관련 제도와 가이드라인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실증 계획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국내외 자율주행차 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후방 추돌 사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광주지역 교통사고 데이터를 활용해 추돌사고 발생 위험도를 분석하고, 사고 위험이 낮은 지역을 우선 실증구역으로 선정할 뒤 점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실증지역 선정 과정에서는 사고 위험도뿐 아니라 교통량, 차로 수, 신호체

계, 도로 선형, 통신 및 관제 인프라 등 자율주행 운행에 필요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 환경 정비의 중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자율주행차는 카메라와 라이다(LiDAR) 등 각종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만큼 야간 조도와 차선 도색 상태, 노면 상태 등이 주행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자율주행 실증에 앞서 광주 전역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실증 예정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자율주행 기술이 기존 규칙 기

반(Rule-Based) 방식에서 인공지능이 주행 전 과정을 판단하는 엔드투엔드(End-to-End·E2E)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대규모 주행 데이터 확보와 고성능 연산 인프라 구축도 실증 성공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꼽았다.

연구진은 “광주 자율주행 실증은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 시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생활도로에서 진행되는 도시 단위 실증사업이라는 점에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고 위험이 낮은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실증을 확대하고 도로 환경 점검과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병행해야 광주시 자율주행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한은 소비쿠폰 경제 효과 분석 작년 2.8조 매출...GDP 0.12% ↑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발생한 추가 매출 규모가 전국적으로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는 한국은행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은은 10일 'BOK 이슈노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 보고서에서 “재정 투입 대비 약 30.9%가 소비쿠폰 사용자의 추가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한은은 소비쿠폰이 지급된 6개 사 신용카드의 매출액 빅데이터를 구축해 소비쿠폰의 매출 증대 효과를 분석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분석 결과 소비쿠폰 사용자 1곳당 월평균 매출액은 소비쿠폰 비(非) 사용자보다 2.91%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사용자의 매출이 각각 6.37%, 5.51% 증가해, 수도권(-0.04%)보다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시기별로 보면 매출 증대 효과는 정책 시행 초기인 7~8월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지급 금액이 더 컸던 1차 지급 이후에는 약 2개월, 2차 지급 이후에는 1개월간 효과가 지속됐다.

업종별로는 의류·식료품·안경점 등 잡화점(8.32%)과 대중음식점(5.84%), 여가·레저 업종(5.39%)의 매출액 증대 효과가 컸다.

반면 학원(-9.25%)과 병의원(-5.91%)은 사용자 매출이 비사용자보다 감소했는데, 이는 가계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병의원 등에서 소비를 늘린 결과로 보인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이를 종합해 신용카드도 지급된 소비쿠폰은 전국 모든 사용자에서 합산 약 2조 8000억원의 추가 매출 증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산됐다. 추정 방법에 따라 이 금액은 약 1조4000억~3조6000억원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전체 지급액 중 신용카드 지급액인 9조 1000억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재정 투입액의 약 30.9% (16.1~39.8%)가 사용자 추가 매출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이와 별도로 소비쿠폰의 가계 소비 진작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설문도 진행한 결과, 1·2차 소비쿠폰의 한계소비성향은 0.20으로 추정됐다. 소비쿠폰 10만원을 지급받은 가계가 평균 2만원의 신규 소비를 늘렸다는 의미다.

이는 코로나19 소비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 추정치인 0.19~0.42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소비쿠폰 지급 직전의 소비 위축 정도가 팬데믹 당시보다 작았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농협상호금융, 'NH록서포터즈' 5기 출범. 농협상호금융은 최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NH록서포터즈' 5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NH록서포터즈는 농협상호금융이 젊은 세대의 소통을 확대하고 혁신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하는 대학생 홍보단이다. 올해로 5기를 맞은 NH록서포터즈는 전국 단위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발된 대학생 50명으로 구성됐다. 사진제공=농협중앙회

## 농식품부·농협재단, 농촌유학 활성화로 도농 상생 확대

### ‘맞춤형 농촌유학센터’ 지원·장기·심화 프로그램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재단이 농촌유학 활성화를 통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와 농촌 간 교육 교류 확대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도농 간 상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농협재단과 협력해 '2026년 농촌유학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촌유학은 도시 학생들이 일정 기간 농촌에 거주하며 지역 학교에 다니고 다양한 농촌 체험과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농촌 학교의 학생 수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도농 교류를 확대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협재단은 그동안 취약농가와 다문화 가정 지원, 농촌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며 농촌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

원해 왔다. 특히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사)농산어촌유학진흥협회를 지원하며 관련 사업 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해에는 농협재단 예산 2억원을 투입해 전국 16개 농촌유학센터에서 농촌유학생과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80여개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문화·예술 분야가 전체의 32%, 체육·건강 분야가 28%를 차지했으며, 풍물과 밴드 공연 등 일부 프로그램은 지역 축제와 연계돼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올해는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했다. 지난 4월부터 총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13개 농촌유학센터가 참여한다. 농촌유학생 140명과 지역 학생 95명 등 총 235명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단순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각 유학센터의 특색을 살린 장기·심화 프로그램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

충남 논산 양지센터의 전통 서예·검도 수련과 풍물 교육, 충북 제천 희망숲센터의 양상봉 정기 감수, 전북 완주 운주센터의 농촌유학 흙키링 및 크리에이터 교육, 전남 강진 읍내골센터의 별자리 관측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향상은 물론 진로 탐색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돼 농촌유학의 교육적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와 농협재단은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현장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성과 공유 회의를 열어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농협 “집중호우·태풍 피해 최소화 총력”

### 재해대책위원회 열고 여름철 대응방안 점검

농협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농협 차원의 재해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1차 범농협 재해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서홍 부회장을 비롯해 농업농촌지원본부장, 사업부문별 부서장 등 재해대책위원회 30여명이 참석했다. 참

석자들은 여름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에 대비한 사업부문별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농협은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농업재해 사전대비 체크리스트를 전국 농업 현장에 배포하고 있으며, 전국 1109개 농촌협과 159개 시군지부를 중심으로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 범농협 재해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해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무이자 재해자금 지원하고, 농약과 영양제 등 농기자재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호물품 지원, 피해지역 일손돕기, 성금 모금 등 복구 활동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박서홍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여름철 자연재해는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부문별 재해 대응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신속한 상황 전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코스피, 4.5% 급락...3거래일 연속 사이드카

### 외국인 23거래일 연속 순매도

코스피가 10일 전날의 급반등 이후 다시 4% 넘게 급락, 널뛰기 장세를 펼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197.16p(2.43%) 내린 7899.77로 출발해 366.11p(4.52%) 내린 7730.82로 장을 마쳤다. 주가는 한때 7541.11까지 밀렸다. 하락 폭 확대에 코스피 시장에는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지난 8일 매도 사이드카, 9일 매수 사이드카에 이어 3거래일 연속 유가증권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이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전날의 역대급 수준보다는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80대 후반으로 높은 수준이다.

VKOSPI는 전날보다 3.16% 내린 88.35로 마감했고, 이날 장중 89.17까지 오르며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드러냈다. 전날에 이어 이를 연속 마-이란 전경이 발발한 직후 지난 3월 5일 기록한 83.58을 웃돌았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조8042억원 순매도하며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2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이어갔다. 기관도 2조2673억원 순매도를 나타냈다. 반면 개인은 4조8611억원 순매수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551억원과 552억원 순매도를 보였다. 기관은 홀로 1347억원 순매수를



나타냈다.

삼성전자는 6.06% 내린 30만2500원에 거래를 마치며 '30만전자'를 간신히 사수했다. 주가는 장중 한때 29만5500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7.54% 내린 204만 80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 역시 종가 기준 '200만닉스'를 지켰지만, 장중 한때 199만2000원까지 내리기도 했다.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 SK스퀘어(-6.78%), 삼성전기(-8.38%), 현대차(-5.79%), LG에너지솔루션(-2.77%), 삼성생명(-6.36%) 등 상당수가 하락 마감했다.

다만 SK그룹이 글로벌 투자기업인 콜버그레비스로버츠(KKR)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일부 매각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SK이티스(29.87%)는 상한가로 마감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2.64%), OCI홀딩스(2.93%)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도 상승했다. 업계기자 djawody0316@

## 농어촌공사, 홍수기 대비 상습 침수현장 점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본격적인 홍수기를 앞두고 김인중 사장이 상습 침수 피해지역과 주요 수리시설물을 잇달아 점검하며 풍수에 대응 태세 강화에 나섰다

김 사장은 지난 1일 '풍수에 대비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시작으로 경기, 충청, 전라, 경상권 등 주요 수리시설과 침수 피해지역 등을 찾아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김 사장은 먼저 전북 익산 망성면 등 상습 침수 피해지역을 찾았다. 점검 현장에서는 피해 원인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점검했다.

공사는 '예방-대비-대응-복구'로 이어지는 재난관리 시스템을 가동해 재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예방 단계에서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취약 시설을 발굴하고 개보수 수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김 사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침수현장 점검을 통해 취약 시설을 발굴하고 개보수 수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김 사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침수현장 점검을 통해 취약 시설을 발굴하고 개보수 수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김 사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침수현장 점검을 통해 취약 시설을 발굴하고 개보수 수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있다.

후우가 예상되면 기상 상황과 저수지 수위, 배수장 기동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긴급대응팀을 투입하는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수 예·경보 체계와 수위 예측 모델로 위험수위 도달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파한다. 또 사전에 수립된 비상대처계획(EAP)에 따라 주민 대피를 지원해 인명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집중호우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면 응급 복구와 항구 복구를 추진한다. 시설물 기능을 신속히 회복해 후속 호우에 따른 추가 피해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어 김 사장은 경기 평택 내전2지구, 경북 왕신저수지, 충남 석우 배수장 등 주요 사업지구와 수리시설물을 찾았다. 김 사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침수현장 점검을 통해 취약 시설을 발굴하고 개보수 수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김 사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침수현장 점검을 통해 취약 시설을 발굴하고 개보수 수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